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예배 안내 ----------

* 가족 중 한 분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 명절 예배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 예배를 통해 가족이 더욱 사랑 안에 기쁨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예배 시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는 일을 삼가 주십시오.
*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한 마디씩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

묵　　상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가족 모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찬송가 550장 / 구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　　도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말　　씀 (잠언 17장 1절) 가족 모두가 같이 봉독합니다.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설　　교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설교를 합니다.)

기　　도 (설교자가 기도합니다. 또는 가족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　　송 (찬송가 559장 / 구찬송가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대표기도 예문 ----------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화목하여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 ----------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풍족한 음식이 광에 가득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가정에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풍족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인경과 삶을 가꾸어 갑니다. 이처럼 가정은 사람의 삶의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화목하면 그 구성원들은 모두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가정의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은 성경과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 속에 빠져 살면서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가정의 행복마저도 물질적 풍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행복의 일부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즉,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비록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러할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상처 받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화목을 경험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된 행복의 울타리인 가정의 화목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2016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화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설임수 목사 (대청 16진 진장)